

담당 부서: 주택실 주택정책과

주택정책과장

사창훈

02-2133-7010

주거안심사업팀장

김경란

02-2133-7988

사진 없음 사진 있음 쪽수: 3쪽

관련 누리집

housing.seoul.go.kr

서울시, 현대백화점그룹 리빙 계열사, 한국해비타트와 함께 민관협력 집수리

-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과 연계한 주거안심동행 민관협력사업... 올해도 계속 이어져
- 서울시-현대백화점 리빙 계열사-한국해비타트, 25일(화) 업무협약 체결로 주거환경개선 지원
- (현대백화점 리빙 계열사) 주방, 욕실 직접 시공 및 현물 지원 (한국해비타트) 공사 현장 총괄 관리
- 시,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기업들과의 지속적인 협력관계 공고화

서울시는 25일(화) 오후 2시 10분 서울시청에서 현대백화점그룹 리빙 계열사(현대리바트, 현대L&C, 지누스), 한국해비타트와 열악한 주거 환경에 놓인 취약계층의 주거환경개선을 지원하기 위한 ‘주거안심동행 민관협력사업’ 업무협약을 체결했다.

○ 이날 협약식에는 김성보 서울시 행정2부시장, 권태진 현대리바트 라이프스타일본부 전무, 김형국 현대L&C 영업전략실 상무, 박형일 지누스 영업본부 부사장, 이광희 한국해비타트 사무총장이 참석했다.

현대백화점그룹 리빙 계열사인 ‘현대리바트’는 지난해 주방·욕실 직접 시공과 침대 후원에 이어 올해도 후원에 참여하기로 하였으며, ‘현대L&C’와 ‘지누스’는 올해 새롭게 후원에 동참하는 기업이다.

- 이번 협약으로 현대백화점그룹 리빙 계열사는 최대 3억원을 후원하며, ‘현대리바트’는 지난해보다 후원규모를 확대해 주방·욕실 직접 시공을 담당하고, 현대 L&C는 건축 자재인 창호, 바닥재, 벽지를 후원하며, 지누스는 침대와 매트리스를 지원할 예정이다.
- 한편, 서울시는 지원 가구 선정 등 행정적 지원을 하며, 한국해비타트는 공사 현장 총괄 관리를 담당하게 된다.
 - 서울시는 2025년 지원 가구 모집을 지난 3월 10일부터 21일까지 진행하였고, 4월 중 최종 지원 가구를 선정할 계획이다.
 - 한국해비타트는 현대백화점그룹 리빙 계열사가 후원하는 가구의 공사 현장 총괄 관리를 맡아 원활한 공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.
- 「주거안심동행 민관협력사업」은 반지하 등 열악한 주거환경에 놓인 주거취약계층 대상 주거환경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으로, 2022년 시범사업 시작 이후 지난해까지 총 77가구를 지원해 왔다.
 - 그동안 서울시는 기업과 비영리단체와 협력해 침수피해로 벽지와 장판에 곰팡이가 가득한 가구는 벽지와 장판을 교체해 주고, 침수피해 방지를 위한 방수공사도 지원해 주었다.
 - 또한, 단열을 위해 창호 교체를 비롯해 주방, 욕실 공사 등 주거취약계층이 보다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할 수 있도록 맞춤형 주거환경개선공사를 지원해 왔다.
- 김성보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“작년에 이어 올해는 그룹 계열사가 동참하여 더 큰 규모로 참여해 주시는 덕분에 서울시가 주거 사각지대에 놓인 주거취약계층을 확대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”며 감사를 표하면서, 앞으로도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 민관협력관계를 더욱더 공고히 하겠다”고 밝혔다.



김성보 서울시 행정2부시장이 25일(화)에 열린 '서울시 주거안심동행 민관협력사업 업무협약식'에서 권태진 현대리바트 라이프스타일본부 전무, 김형국 현대L&C 영업전략실 상무, 박형일 지누스 영업본부 부사장, 이광희 한국해비타트 사무총장과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.

(왼쪽부터 이광희 한국해비타트 사무총장, 김형국 현대L&C 영업전략실 상무, 김성보 서울시 행정2부시장, 권태진 현대리바트 라이프스타일본부 전무, 박형일 지누스 영업본부 부사장)



25일(화) '서울시 주거안심동행 민관협력사업 업무협약식' 단체사진